

Methods of Teaching Librarianship

圖書館學教授法

—教科課程을 中心으로—

조세파 E. 세이바 著

鄭 在 琿 譯

(中大圖書館學科助教)

譯者註：圖書館學에서 教科課程과 教授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특히 教授法의 重要性은 누구나 共感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圖書館學은 自體에 알맞는 教授法이 개발되지 못한채, 傳統的인 教授法을 답습해오던가 아니면 法律學, 經濟學 등 다른 學問分野의 教授法을 그대로 導入해왔기 때문에, 圖書館學教授法이 限界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圖書館學教授法에 관한 文獻도 좀처럼 보기도 못하며, 설상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이 그 理論을 體系化시키지 못하고 圖書館學教育運營上의 節次와 技術만을 다루고 圖書館學에 적합한 教授法을 다루지 않은 것이 그 特徵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Josefa E. Sabor 教授가 著述한 *method<sup>s</sup> of teaching librarianship* (Paris: Unesco, 1969)에 收錄되어 있는 Curriculum을 번역한 것이다. 1976年 8月 Lausanne에서 開催된 IFLA總會에서 圖書館學校分科委員會(Section of Library Schools)가 “圖書館學校의 基準, 1976” (Standards for Library School, 1976, *IFLA Journal*, vol.2, No.4, 1976, pp.209-223)의 “Curriculum”條項(p.220)에서 이 책을 勸獎한 것만 보더라도, 이 책은 종전의 圖書館學教授法을 탈피해서 실제로 圖書館學에 적합한 教授法을 示唆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Josefa E. Sabor 教授는 현재 Buenos Aires 大學校(Argentine), 圖書館學研究所 所長으로 在職중이다.

教科課程의 內容

圖書館學의 教科課程은 圖書館學의 目的과 內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世紀 부터 전해오던 傳統的인 觀念이 마침내 浪漫的이고 民主的인 生活觀에 의해서 고취되고 있다. 1936年末 Marcel Godet가 ‘自由’(혹은 解放?)의 要因이 公共圖書館의 設立에 있다고 주장한

이래, 이러한 주장은 계속해서 司書들 보다는 오히려 教育家와 文學家들에 의해서 우리 世代에 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Boston 公共圖書館이 創設된 지 100年의 훨씬 지난 오늘날에 와서도 그러한 提昌이 앞으로 完전하게 實現되리라고는 아무도 豫見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公共圖書館의 役割은 急進的으로 變化해가는 社會에 알맞도록 그 定義도 치밀하고 精確하게 修正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圖書館이 어찌서 文化暢達이 寶庫이며, 教育過程에서 圖書館이 어느 정도에 밀접한 要因이며, 그리고 圖書館이 社會的, 經濟的 開發에 과연 影響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와, 圖書館이 文化創造에 어떻게 作用하고 있으며, 끝으로, 오늘날 중요한 問題의 하나인, 복잡한 情報分野에서 圖書館의 役割이 무엇인지 등등의 問題에 대해서 疑問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모든 問題들은 圖書館의 目的은 물론이거니와 Nassif教授가 지적하였듯이 圖書館教育의 概念, 目標, 그리고 機能에 의해서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설명한 圖書館學에 대해서 그 研究의 範圍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圖書館學 教科課程에 나타나 있는 傳統的인 科目에 대해서 異意를 제기하려고하는 것은 아니다. 問題는, 오늘날 圖書館과 이와 유사한 資料室에 축적되어 있는 大量의 情報은 利用者들의 要求事項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檢索處理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文獻의 急增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傳統的으로 사용해오던 圖書館學基準중에서 부당한 것은 제한시키고, 복잡하고 새로운 環境에 直面하고 있는 傳統的인 圖書館實務와 媒體에 대한 本質도 제한시켜야한다고 하므로써 더욱 복잡한 問題단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危機는 司書들의 專門職에까지 파급되어, 그들은 圖書館學教育에 관한 어떠한 問題라도 論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解決해야 할 問題, 즉 도큐멘테이션

을 圖書館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닌지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問題는 쉽사리 解決될 수 없는 어려운 問題인 것이다. 그래서 이 問題는 現在로서는 解決될 수 없기 때문에, Shera 教授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問題의 觀點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圖書館學의 進路方向에 관해서 變化가 많고, 不確實하고 指票가 없는 '危機의 時代'에 처해 있다는 用語를 대법하게 創案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sup>1)</sup>

사실상, 圖書館學의 敎科課程속에 '情報科學'과 관련되어 있는 主題(科目)를 포함시켜야 할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論議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 부터 圖書館의 主業務는 情報活動인 것이다. 1876年 이래로 美國에서는 參考奉仕를 對備하는 것이 圖書館의 主業務임이 강조되어 왔으며, 사실상 參考奉仕의 開發問題가 美國의 圖書館奉仕중에서 가장 관심을 차지한 問題인 것이다.

時間이 지날 수록 參考業務量은 증가해서 과거에 산발적으로 讀者에게 제공하던 奉仕가 오늘날에는 모든 圖書館이 구비할 수 없는 복잡한 技術運營機械奉仕로 변모하고 있다. 그 중에서 Доку멘테이션分野가 서서히 進展하고 있고, 특히 科學圖書館(例: Chicago에 있는 John Crerar 科學圖書館)에서는 완전한 Доку멘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圖書館奉仕의 發展에 관한 著書들이 많이 出現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著書로서는 Samuel Rothstein의 著書<sup>2)</sup>를 들 수 있다. 電子計算器의 出現으로 대부분의 圖書館에서는 이 電子計算器가 'library engineers'에 의해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서 狀況(situation)은 더욱 惡化되어, 라이브러리 아리스트크라시 ('library aristocracy')가 最低點에서 形成되어 있어서 學生들이 이의 專門用語와 問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흥미도 없는 것 같다.<sup>3)</sup> 만약 이러한 새로운 library aristocracy가 정당하다면, Доку멘테이션은 圖書館學의 一部分<sup>4)</sup>이므로, 圖書館學校는 1965년에 Rees와 Saracevic이 공동으로 발표하고, 1964년에 발표된 Montgomery의 論文<sup>5)</sup>을 기초로해서 敎科課程속에 하나의 專攻主題를 새로이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科學의 發達로, 科學者들은 훌륭하고 신속한 情報를 利用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또한 圖書館學에 대해서 根本的인 再評價를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圖書館學領域에 침범하여 敎科課程을 改定할 정도로 影響을 주고 있다. 때를 같이해서, Shera씨도 圖書館學에 대한 擴大實施(extension)를 주장하는<sup>6)</sup> 한편, 이러한 改革者들과 意見을 일치하는 Rees<sup>7)</sup>도 이

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ibrary Science, Center for Documentation and Communication Research, 1965.

- 2) S. Rothstein, *The development of reference services through academic traditions, public library practice and special librarianship*, Chicago,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ference Library, 1955 (ACRL monographs, 14).
- 3) R.Z. Sellers, A different drummer: thoughts on library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6, 1966, pp.151-66.
- 4)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Title II (B), Sec. 222p.에 의하면 圖書館學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圖書館學이란 情報의 入手, 組織, 蓄積과 配布, 그리고 圖書과 기타의 情報서비스에 대한 參考 및 研究利用을 포함한 圖書館學의 理論과 實際를 의미한다'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6, 1966, p.219에서 引用)

圖書館學의 定義에 관한 여러가지 說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C.D. Gull, The challenges of teaching the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6, 1965, p.61-4; R. M. Hayes, The development of a methodology for system design and its role in library education, in: Chicago University, Graduate Library School, Annual Conference, 29,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the library education*, p.51-63. edited by D.R. Swanson; C.G. Stevenson, Library education; the shape of the future, *Special libraries*, vol.54, 1963, p.261-2; L.A. Martin,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of librarians*, in: Chicago University, Graduate Library School, Annual Conference, 20, 1955, *The future of the book; implications of the newer developments in communication*, edited by L. Asheim.

- 5) A.M. Rees and T. Saracevic, Teaching documentation at Western Reserve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6, 1965, p.8-13; E.B. Montgomery, Curriculum implications of library dynamic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5, 1964, p.103-9.
- 6) J.H. Shera, In defense of diversit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4, 1964, p.137-42. 1953年初에 採擇된 專門敎育에 대한 11개의 基本的인 提案중에서 Shera는 第9項과 10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第9項: 어떠한 일정한 書誌運用(bibliographic operation)이라도 전반적인 社會의 書誌道具(bibliographical apparatus)面에서는 絶대적으로 필요한 要素이며, 어떠한 空間的體系(local system)라도 전반적인 體系의 效果를 위해서는 그 空間的體系의 役割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립되어 있는 斷片的이라 할지라도 社會적으로 害가될 뿐만 아니라 날로 복잡해가는 人間의 知識構造에 대해서 絶對적인 파괴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第10項: 그래서 Доку멘탈리스와 司書는 서로 똑같이 社會的 責任을 認識해서 동일한 理論的인 敎育을 받을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提案은 다음의 文獻에도 收錄되어 있다. J.H. Shera and M.E. Egan, Examen del estado actual de la biblioteconomia y de la documentacion(translated by A.J. Giangrasso), *Universidad* (Santa Fé, Argentina), vol.61, 1964, p.279-321.(p.317) 와 S.C. Bradford, *Documentation*, 2nd ed., London, Crosby, Lockwood & Son, 1953.를 스페인어로 번역한 序文에도 收錄되어 있음.
- 7) A.M. Rees, New dimensions in library education: the

1) J.H. Shera, Introduction and welcome, in: A.J. Goldwyn and A.M. Rees(ed.), *The education of science information personnel*. 1964, p.1-5. Cleveland, Wes-

들을 반박할 수 있는防禦手段이 될 수 있는結論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人間의 知慧와 知慧사이에서 情報를 傳達시키는 情報시스템은 不合理하다...’ 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제한된 役割은 特殊圖書館(special libraries)에 委任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參考文獻提供에 대한 그 價値에 대해서는 言級을 하지 않고 다만 不完全한 業務로만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圖書館學校가 參考奉仕에 대한 기본적인 原理와 關係가 없는 새로운 奉仕技術을 개발하려던 試圖가 실패했음을 시인하면서, ‘머지 않은 장래를 위해서 現實의이고 實際의인 奉仕技術은 圖書館學校에서만 개발할 수 있다’고 結論을 내리고 있다. 그는 이러한 方向으로 움직이는 學校로서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ibrarianship을 例로 들고 있다.

이 圖書館學校에서는 科學·技術分野가 개발한 새로운 檢索法을 계획하고 運用하는데서 얻은 經驗과 傳統的인 圖書館學의 理論과 實際를(統合)시키려고 推進중이다. 이것을 達成하기 위해서, 이 圖書館學校에서는 情報시스템에 관한 基本原理를 設定한다는 觀點에서 다른 研究機關과 連絡하면서 教科課程속에 scientific information personnel 養成에 적합한 科目을 制度化하고 있는 중이다. 結論적으로 Rees의 主張은 이러한 教科課程은 다른 機關이 아닌 바로 圖書館學校에서 作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Rees의 이러한 理論은 아직까지도 司書와 科學者들에 의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科學者들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科學文獻은 科學專門家들이 다른 科學專門家들을 위해서 著述한 것이므로, 情報檢索도 科學者에게만 가능한 高度로 專門化되어 있는 業務라는 것이다. 그러나 圖書館學校는 이러한 問題를 깊이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고, 이에 대한 反應도 科學者들이 바라던 것보다는 그 規模가 크지 못했다. 그래서 圖書館學校들은 科學者들로부터 科學情報專門家 혹은 情報科學者를 養成하는 곳으로 誤認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圖書館學과는 전혀 관계없이 圖書館學校가 될 可能性도 示唆되고 있다.<sup>8)</sup> 그러나 圖書館學校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몇몇 學校에서는 이미 文獻·탈리스트 養成에 필요한 전반적인 教育課程을 실시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美國의 Drexel Institute of Technolog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와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印度의 Bangalore Document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그리고 蘇聯의 VINITI가 바로 그것이다.<sup>9)</sup> 이 중에서 Drexel 技術學校에서는 도큐멘탈리스트를 4가지 다른 分野, 즉 directors, instructors, analysts와 manipulators로 分離시켜 教育을 실

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도큐멘탈리스트와 司書養成教育이 나날이 더욱 더 分化되어 가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종합해 보면, 圖書館學教育이 가장 發達한 美國에서는 지금까지 무엇 보다는도 圖書館學이 罪乏되어오던 科學的 困窮(scientific rigour) 보다는 하나의 學問으로서 圖書館學의 體系를 위해서 충분한 內容을 다루려고 노력중에 있다.<sup>10)</sup> Shaw의 見解에 의하면, 圖書館學의 體系를 세우려고 하는 美國의 努力은 圖書館의 傳統的인 象牙塔이라고 하는 認識을 떨쳐버린 社會變化的 影響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이 限定되어야 하는 責務가 存在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達成하려면 科學, 人文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圖書館學이 共同으로 努力을 해야 되는 것이다.<sup>11)</sup>

training of science information Personnel, *Special libraries*, vol.54, 1963, p.497-502.

8) C.G. Stevenson, Library education; the shape of the future, op. cit.

9) N.P. Skrypnev, On the state of library education in the U.S.S.R. and the means of improving it,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5, 1964, p.110-13; L. Vichniakoff, Enseignements nouveaux dans les techniques de l'information scientifique, *Bulletin des bibliothèques de France*, vol.9, 1964, p.373-86; J. Ferradane, Training for information science, in: R.L. Collinson(ed.), *Progress in library science*, London, Butterworths, 1965, p.96-110; B. Balbis, La enseñanza de la documentación en Italia(translation with notes by D. Buonocore), *Universidad*, (Santa Fé, Argentina), vol.66, 1965, p.199-214.

다음과 같은 文獻에서 Brazil도 美國과 비슷한 도큐멘탈리스트教育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L. Monteiro da Cunha, *Formación de bibliotecarios, bibliógrafos y documentalistas en America Latina*, in: *Informe provisional*, Mexico, 1960, p.45-53(Seminario latinoamericano de Bibliografía, Documentación y Canje de Publicaciones, 1).과 Formación profesional: *Round tabl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Latin America Washington*, 1965. *Final report and documents*, Washington, Pan American Union, vol. I, 1966, p.119-31. 그리고 Poland의 도큐멘테이션教育課程에 비평적 考察은 다음의 文獻에서 찾아 볼 수 있다. Central Institute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A guide to the world's training facilities in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work*, The Hague, FID, 1965 (FID, 373).

10) A. Kaplan, The age of the symbol; a philosophy of library education, in: Chicago University, Graduate Library School, Annual Conference, 29, 1964. op. cit., p.7-16; J.H. Shera, Toward a new dimension for library education; the shape of the future, ALA bulletin, vol.57, 1963, p.313-17; D.R. Swanson,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library education: introduction, in: Chicago University, Graduate Library School, Annual Conference, 29, 1964, op. cit., p.1-6.

11) R.P. Shaw, The library's role in Society today

이를 成功하려면 圖書館學教育이 現趨勢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教科課程을 再檢討해서 再構成해야 할 것이다. Morton의 주장처럼, 오늘날의 圖書館은 현재의 司書들이 圖書館職에 奉仕하던 過去の 圖書館과는 그 樣相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樣相의 變化에 따라 司書를 教育시켜야 한다. 그리고 내일의 司書가 오늘의 司書만은 아닐 것이다. 이미 배운 圖書館學의 理論과 實際는 最近의 圖書館學研究가 結實을 맺기도 전에 쓸모없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날 圖書館學校는 圖書館職에 있어서는 未來의 變化에 대해서 對應에 필요한 展望을 가지고, 未來의 變化에 適用할 수 있는 일반적인 原理를 가르치고, 學生의 能力을 開發하고 있다.<sup>12)</sup>

圖書館學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觀點은 現在の 目的을 充足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結論을 내릴 수 있는 豫備行爲로서만 강조되어 왔다. 만일 Shera, Shaw, Swanson, Kaplan 등 여러 저명한 學者들의 野心이 타당하다면, 특히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圖書館學은 이러한 급속한 變化에 대해서 복잡한 專攻이 될 것이므로, 모든 學問研究를 奉仕할 수 있는 專門司書를 養成하는 目的을 크게 達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開發途上國家들은 情報를 接近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情報은 國家的 혹은 國際的 次元에서 모든 國家에게 同等하게 利用되어야 한다.

그렇다고하면, 우리들은 전적으로 傳統的인 圖書館學分野로부터 불가피한 새로운 學問을 直面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새로운 學問이 단순히 傳統的인 圖書館學의 補助學問인가? 만일 後者일 경우에, 圖書館學校에서는 定期的으로, 혹은 急進的으로 教科課程을 修正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만일에 前者인 경우, 즉 도큐멘테이션이 圖書館學과는 別個의 새로운 學問이라면, 圖書館學校에서는 이 새로 등장한 專門家(도큐멘탈리스트)를 養成하던지 안 하던지 간에 계속해서 司書를 養成해야 할 것이다.

만일에 이 새로 등장한 專門家を 養成할 경우에는, 다른 學問의 專門家들의 教育方法에 의존해야 하고 다른 學問의 教科課程도 導入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도큐멘탈리스트를 養成하려면 우선, 相互關聯學問의 教授法을 이용해야 한다. 도큐멘탈리스트 教育이 얼마만큼 司書의 特權에 속하며, 圖書館學校가 어느 정도 이 課業을 委任받아야 하는가 하는 問題는 아직까지도 解決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특히 開發途上國家의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美國에서는 圖書館學으로 Newhouse Communication Center of the University of Syracuse가 저널리즘, 라디오와

텔레비전, 커뮤니케이션과 圖書館學研究를 統合해서, 他大學의 研究所와 協力해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進行하므로써 立證된 바와 같이, 이 問題를 解決하려고 노력하고 있다.<sup>13)</sup> 情報科學에 대해서 Hayes는, 圖書館學은 情報의 取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專門教育이기 때문에 教科課程은 전적으로 圖書館學校가 작성해 왔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情報科學은 理論上 圖書館學의 下位構造(substructure)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情報問題의 屬性이 다른 學問들과 相互關聯이 있음을 감안할 때, 教科目도 다른 學問의 教科目을 많이 導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4)</sup> 또 Boaz도, 有能한 司書를 養成하려면 司書專門職相互關聯된 다른 專門職과 交換할 것과, 教科課程을 새로이 作成하더라도 傳統的인 圖書館學의 理論과 方法을 포함시켜야 하되, 이를 相互關聯된 學問과 協助해서 大學의 職員, 圖書와 實驗室 그리고 그 大學의 faculties와 접근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sup>15)</sup>

그러나 이상의 모든 條件이 다 具備되어 새로운 教科課程이 작성되었다 해도, 과거부터 傳統的으로 내려오는 圖書館學의 本質, '기본적인' 圖書館奉仕와 Danton<sup>16)</sup>씨가 '知識, 案內와 敎示의 教育的 寶庫'라고 命名한 '기본적인' 圖書館이 開發途上國家에서는 절대적으로 要求되는 것이고, 과거 100年 동안, 특수한 業務와 矜持가 되어왔던 圖書館奉仕를 효과적으로 遂行하기 위한 專門司書職教育이 아직까지도 극도로 要求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否認할 수 없다. 물론, 모든 國家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한 도큐멘탈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은 臨時防策의 危險性이 解決되면, 대부분의 圖書館學校에서는 도큐멘탈리스트를 완전히 養成시킬 展望은 보이지 않는다. 開發途上國家의 圖書館學校들이 직면한 難點을 判斷하기 위한 論證을 준비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2, 1962, p.177-82.

- 12) F.F. Morton, *Education for librarians*, Emporia, Ka., Kansas State Teachers College of Emporia, 1961, p.20-21. 그리고 司書의 數와 資格問題를 다룬 *Library Journal* (vol.91, No.7, 1 April 1966과 vol. 91, no.18, 15 October 1966)을 參照할 것.
- 13) The education of science information personnel, op. cit., p.21.
- 14) R.M. Hayes, The new Master of Science degree in information science (documentation) to be given by the School of Library Service, UCLA, in: *Symposium on Educ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Warrington, Va*, 1965. *Proceedings*, Washington, Spartan Books, London, Macmillan, 1965, p.61-66.
- 15) M.T. Boaz, More than deliberate speed, *ALA bulletin*, vol.60, 1966, p.286-8.
- 16) J.P. Danton, *Education for librarianship*, Paris, Unesco(Unesco public library manuals, 1), 1950, p.2

하는데 드는 費用의 限界와 文獻教育에 있어서 컴퓨터利用法에 관한 것은 Gull의 論文<sup>17)</sup>을 읽는 정도로도 족하다. 文獻教育의 側面에서 볼 때, 우선 가능한 것은 學生들에게 文獻教育에 대한 일반적인 概念과 文獻教育이 다루는 分野와 動向을 알려주는 일이고, 둘째로, 文獻教育과 data蓄積 및 檢索法을 紹介하는 일이다. 아직까지 文獻教育에 관한 經驗과 施設이 부족한 圖書館學校가 이 이상 教科課程을 擴大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圖書館學校가 다른 大學과 專門機關과 提携해서 相互關聯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遂行만 해 나간다면, 그들의 展望은 豫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技術과 實際를 동원하여 文獻教育의 養成할 수 있다.

文獻教育과 관련된 問題는 엄격한 면에서 文獻教育이 機械化가 되지 못한 일정한 特殊技術을 傳統的인 圖書館組織에 適用했을 때, 圖書館機械化에 나타나는 그 效果가 問題인 것이다.<sup>18)</sup> 現在 美國의 몇몇 圖書館學校에서는 이러한 文獻教育技術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技術은 아직도 開發過程에 있으므로, 圖書館觀點에서 아직까지 論及되지 않은 地域과 人口를 對象으로 試圖할 수 있는 國家에서도 傍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직도 問題의 이런 國家들이 圖書館의 機械化에 대한 問題를 얼마나, 어느 정도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圖書館의 機械化問題를 圖書館學校에서는 教科課程에서 어느정도 다루어야 되는지 이에 대한 研究는 아직까지도 發表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이 問題에 관해서, 현재 Unesco가 圖書館과 文獻教育센터의 規模, 서어비스, 機械化費用, 人力需給 등에 力點을 두고서 진행하고 있는 圖書館機械化시스템 適用에 관한 計劃이 注目を 끌게 될 것이다.

圖書館學校의 教科課程內容을 作成할 때 考慮해야 할 세번째 事目은, 未來의 司書들로 하여금 現在 혹은 未來의 어떠한 變化를 體驗하더라도 環境(milieu)의 特徵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經濟狀況이 實驗의 圖書館學校(特殊圖書館을 포함해서 敎員, 教育施設의 質)뿐만 아니라, 地域社會가 소유하거나 擴張할 수 있는 圖書館發展에 커다란 影響을 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圖書館學校는 現在의 要求를 벗어나 앞을 내다보면서 教科課程을 作成해야 하며, 圖書館學教育을 推進해서 司書職을 大學水準으로 올려 놓을 수 있는 것은 거창한 目標보다는 열심히 努力을 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敎授의 本質과 現實의인 狀況 사이에는 일정한 均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環

境(milieu)(圖書館學體系가 매우 발전한 國家에 있어서 早熟한 協力の 結果를 말함)을 받아드릴 수 없을 때, 야기되는 어려운 問題를 解明하고 圖書館學이 고도로 發達한 地域에 있어서 圖書館學校가 教科書(敎材)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깊게 檢討해야 한다. 이상 설명한 여러가지 條件에 의해서, 圖書館의 本質과 圖書館利用法을 전혀 모르고 入學하는 圖書館學校 新入生의 資格을 考慮해야 한다. 初, 中等學校의 學校圖書館들은 教育施設로서 제 機能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敎師, 敎授와 司書들 간에 協力度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이 중에서 後者(司書)는 教育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開發途上國들이 公共圖書館이 전혀 없고, 이러한 公共圖書館이 여러 모로 地域社會에 일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圖書館學校 新入生들이 훌륭한 圖書館奉仕를 利用했을 리가 없고, 경우에 가서는 전혀 圖書館利用에 習慣이 익혀지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은 수긍이 간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現象은 아직도 대부분의 國家에서는 圖書館에 대한 認識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서 Latin America의 경우, 圖書館學校의 入學狀況이 극히 저조한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現實이다.<sup>19)</sup> 그러기 때문에 긴급한 狀況으로 보아, 모든 學問을 研究하는 첫 段階로서 圖書館利用法에 관한 教育課程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 圖書館利用法의 教育內容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볼 수 있다. 學校圖書館利用法, 專攻參考資料利用法, 書誌檢索入門, 小規模(small) 研究計劃을 위한 有用한 資料利用法과 간단한(simple) 論文의 草案作成法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외에 正規的인 敎授프로그램의 일환으로 圖書館과 講義室內에서 讀書時間이 補充되면, 圖書館利用에 익숙되지 못해왔고 당황해왔고 圖書館奉仕의 力點을 깨닫지 못한 大學生들이 종종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問題를 해결해 준다. 그런데 이러한 教育課程이 잘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學生들이 잠재적으로 司書職을 技術分野로

17) C.D. Gull, The challenges of teaching the information science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6, 1965, p.61-64.

18) H.C. Campbell, Some implications for libraries of communications satellites,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20, 1966, p.129-32, 139

19) M.T. Sanz(*Análisis de los informes nacionales sobre el estado actual de la profesión bibliotecaria en la América Latina*, Medellín, Bedout, 1965) 이 調査한 統計에 의하면, 1962年 現在에 Latin America의 司書는 16,241名이 부족했으며 18,848名의 司書중에서 21.30%만이 大學出術이고, 10年동안(1962-72)에 25,202名의 司書가 充員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圖書館學教育을 실시하고 있는 13個國(圖書館學校가 없는 國家도 있음)이 배출할 수 있는 司書는 1,696名에 불과했다.

만 認識한 나머지 教育課程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sup>20)</sup>

圖書館學이 胎動期에 있는 國家들의 狀況에서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한 圖書館學校의 教科課程을 劃一的으로 作成되고 커뮤니케이션이 教科課程의 主題로서 포함되어야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圖書館學이 發達한 國家들의 政策을 지나치게 조속하게 받아드리거나 항상 제자리 걸음식의 사람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問題와 危險性에 대한 概念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그리고 다음에는 圖書館學을 發展시킬 資格이 부여된 모든 國家들이 가능한 것 부터 段階的으로 圖書館學을 發展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부터 本書에서는 모든 開發途上國의 圖書館學校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且 필수적인 教科課程, 다시 말해서, 圖書館學教育에 필요한 傳統的인 專攻科目만을 言及하려고 한다.

### 教科目の 設定

教科目은 主題專門家들이 地域的 傳統과 關心의 觀點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國家에 공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반적 學問의 動向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모든 이러한 教科目은 크게 技術部門과 '教育理論部門'으로 분류된다. 美國과 유사한 教育制度를 가지고 있는 國家들은 學士와의 동등한 學位를 修了하였을 때, 一般教育을 完了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佛蘭西와 같은 유럽式 教育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國家들은 敎師養成과 學士課程(大學에서 基礎課程 1年을 계산해서, 대개 10~12年間的 課程)에서 배운 敎養知識만으로는 司書의 資質을 갖추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비교적 穩健한 見解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開發途上國은 많은 圖書館學校들이 教科課程 속에 다양한 言語學 특히 古語를 비롯해서, 哲學, 文學, 文化史, 科學技術史, 教育學, 社會學概論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打字을 가르치고 있는 學校는 소수에 불과하다.

圖書館學教育은 傳統的인 分野를 중심으로, 즉 目錄法과 分類法, 參考奉仕와 書誌, 圖書館行政, 圖書와 圖書館의 歷史를 중심으로 教育이 실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未知의 상태에 있는 圖書館學의 理論과 概論과 관련된 一般主題와 圖書選擇法을 실시하고 있다. 圖書館學教育이 충분히 發達된 國家의 경우처럼, 專攻科目과 그 內容을 가지고 어떠한 形態의 專攻教育을 形成해야 하는가에 대한 意見이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教科課程을 參照해보면, 다양한 技術面을 다룬 여러 國家들의 프로그램을 답습한 것이다. 이것은 쓸모없는 資

料와 실제적인 狀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情報入手が 가능한 節次와 業務의 觀點에서 볼 때, 전적으로 非現實的인 方針으로 教授되는 科目인 것이다.

'專攻'科目은 別問題로 하고, 圖書館學教授는 다양한 圖書館類型과 때로는 종종은 아니지만, 定期刊行物이나 特殊記事와 같은 여러가지 資料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 다른 科目으로는 文獻學, 研究方法論(methodology of intellectual work), 圖書館學教授法, 그리고 古文書學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圖書館學教育의 多樣化가 분명히 低質이기 때문에, 圖書館學教育이 실시되고 있는 國家의 圖書館學教育의 多樣化가 低質인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다. 더욱이 수 년전까지 先進開發國이 遵守해온 圖書館學教育의 多樣化에 대한 熱情은 모든 國家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신중한 기본적인 圖書館學教育 보다는 問題를 일으켜 왔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蘇聯의 圖書館學教育制度가 가장 흥미를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高度로 발달된 圖書館學教育의 多樣化와 專門職課程에 드는 費用이 많이 들기 때문에, 實際的인 資料와 圖書館學校 入學生이 부족한 國家에서는 考慮해 볼 수 없는 要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基本教科目이 司書가 후에 가서도 다양한 環境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集約된 知識을 제공해야 한다.<sup>21)</sup>

司書를 몇 等級으로 나누어 養成시켜야 하는지의 論爭은 圖書館教育의 多樣化와 專門化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圖書館專門職內에 下層社會를 構成하는 傾向과 圖書館水準을 서로 統合하려는 이 두가지 두드러진 어려움 때문에 司書를 等級으로 나누어 教育시키는 데에는 어려운 問題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히 司書教育의 問題를 一括하여 解決할 의무가 있는 國家에 대해서는 모든 司書職位가 채워져야 함에도 이러한 시스템의 利點은 명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監督者와 많은 圖書館技士(library technicians)들을 養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分野에 있어서는 일찌기 蘇聯이 오늘날 開發途上國과 유사한 位置에 있음을 판단했기 때문에, 1918년에 매우 중요한 實驗을 進行했다. 蘇聯은 特殊機關이나 特殊課程에 적합한 一流도큐멘탈리스트들의 教育을 두개의 水準에서 매담

20) G.S. Bonn, Training laymen in use of the library, in: R.R. Shaw(ed.), *The state of library art*, vol.2, part I, p.1-114, New Brunswick, N.J., The Rutger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ibrary Service, 1960.

21) L. Asheim, Education for librarianship, *Library quarterly*, vol.25, 1955, p.76-90. 비록 1931년부터 1955년까지의 美國의 圖書館學教育의 現況을 叙述하고 있지만, 그의 結論은 보편적인 興味를 주고 있다.

하게 실시했고, 司書들의 豫備教育일 뿐만 아니라 司書들을 奉仕하는 새로운 課程인 通信教育課程과 같이 다른 國家에서는 좀처럼 실시하지 않는 많은 教授型을 실시했다. 이 實驗結果로 蘇聯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專門家가 부족하고 大學教育을 받지 않고 司書들을 奉仕해주는 文獻學자들이 50% 이상이 된다는 사실은 開發途上國의 圖書館學教育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要因이 되고있다. 이와 똑같은 專門教育의 必要性이 先進國에서도 絶실하기 때문에, 美國과 같은 先進國에서도 圖書館學 教科課程속에 文獻學의 敎育方法을 導入하고 있다. 예를 들어, 學校圖書館이나 公共圖書館의 司書의 資質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方案으로서 碩士와 博士의에 알맞는 學位를 수여할 필요성이 論議되어 오고 있다.<sup>22)</sup> 이상에서 설명한 司書教育의 問題를 解決하려는 여러가지 試圖들은 근본적으로 教授類型을 變化시켜서 教授法의 選擇에 관한 새로운 問題들을 提起해준다. 이처럼 司書教育의 再考가 불가피한 狀況에서는 蘇聯이나 다른 開發途上國들 처럼 敎育의 第一段階에 적합한 通信敎育과 프로그램식 敎育方法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특별한 關心이 提起되어야 한다.<sup>23)</sup>

다양한 敎育水準을 가지고 敎育構造를 形成할 때, 가장 어려운 問題는 말할것도 없이 이렇게 다양한 敎育水準을 서로 結合시키는 일이다. 美國과 같이 先進國에서 이러한 問題는 모든 圖書館專門家가 지니고 있는 關心事이나, 開發途上國에서는 이 問題는 圖書館人의 業務, 圖書館人의 資質, 學位와 名聲을 얻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敎育水準에 대한 Lancour의 主張을 요약하면 '統合, 決定, 協力, 綜合'이라고 볼 수 있다.<sup>24)</sup> 만약 이러한 主張이 教科課程의 構成에 적합하고 바람직하다면, 圖書館學敎育은 여러가지 水準에서 單一水準에서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22) J. Lancour, what next in the curriculum? *ALA bulletin*, vol. 86, 1962, p.324-27; J.H. Shera, Dimensions of the masters program, *ALA bulletin*, vol. 58, 1964, p.519-22.

23) 東歐國家에서도 이와 같은 趨勢가 일고 있다. H. Wieckowska, L enseignement Supérieur des bibliothécaires dans les pays de l'Europe Orientale, *Libri*, vol. 10, 1960, p.53-8 M. Rudomino, H. Wieckowska, F. J. Kase와 H. Kunze가 蘇聯, 폴란드, 체코, 東獨의 圖書館學敎育에 대해 쓴 論文을 참조하고, *Library trends* (October 1963)와 D. Jaroslav, University education for librarianship,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6, 1966, p.257-65와 무엇보다도 M. Kóvacs,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librarians in Hungary, *Libri*, vol.16, 1966, p.18-48과 the proceedings and decisions of two Conferences: Conférence Internationale sur la Formation Universitaire des Bibliothécaires, Prague, 1959 (*Comptesrendus, discussion et recommandation*, Prague, 1959); Konferenz der Bibliothekswissenschaftlichen Hochschulen und Institute in den Sozialistischen Ländern, 2, Berlin, 1962 (*Gegenstand und Methoden der Bibliothekswissenschaf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Bibliothekswissenschaft als Hochschuldisziplin; Referate, Materialien, Diskussionen, Ergebnisse und Empfehlungen*, Leipzig, 1963).를 참조할 것.

24) J. Lancour, What next in the curriculum? op. cit., p.326.

### ● 會員倍加 運動을 展開하고 있습니다.

圖書館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內唯一의 圖書館聯合體인 本協會는 全國에 있는 보다 많은 圖書館 및 圖書館人들이 本會 趣旨에 贊同하여 參與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會員 여러분께서는 아직 加入치 않고 있는 圖書館이나 司書에게 會員加入을 勸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會員의 種類

個人會員 : 圖書館職員 및 圖書館學을 履修한 사람

團體會員 : 圖書館, 學校 기타 圖書館 施設을 가진 團體

#### 入會節次

所定樣式에 의한 入會 申請書를 記載 捺印하고 會費를 納付하면 會員證을 交付받게 됩니다.